

청록사회복지재단

제 71 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2년 08월 17일 (수) 10:30 ~

2. 장소(방법) : 법인사무실

3. 회의안건 :

- 1) 2022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2)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의 건
- 3)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민원사항 관련의 건

4. 참 석 자 : 대표이사 최소남

이 사 박철수, 박종수, 이정목, 김후분, 노동문
감 사 천영희, 정명환

제 1 부 개 회 식

1. 회원점명 : 총 8인의 이사중 6명이 참석함으로써 정족수가 되었음을 알린다.
2. 개회선언 : 대표이사가 정관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가 성립됨을 선포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 2 부 본 회 의

제 1 안 : 2022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대표이사 최 소 남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참석이사에게 이사회 개최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해정 관장으로부터 2022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구하다.

관 장 이 해 정 : 2022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예산 2,143,144천원 세출예산 2,143,144천원으로 당초예산 2,137,444천원보다 5,700천원 증가하였다. 추경 세입 사유로는 노인일자리보조금수입 시도보조금(30%), 시군구보조금(20%)로 변경과 통합돌봄어울림센터 보조금의 증가와 BMC안심앱 지정후원금수입의 증가가 있음을 설명하다. 추경 세출 사유로는 인건비중 제수당의 감소

와 통합돌봄어울림센터 운영비 및 서비스연계사업비의 증가가 있음을 설명하다. 제수당 감소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직원의 직책보조비등 제수당은 자부담 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이후 프로그램사업비, 실습비등 외부수입의 감소로 2022년 6월까지 지급하고, 2022년 7월 이후는 예산편성에서 제외키로 함과 향후 자부담 수입 증가등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을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대표이사 최 소 남 : 2022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문 및 동의를 구하다.

이 사 이 정 복 : 제수당의 감소는 직원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하다.

감 사 정 명 환 : 직원들에게 급여는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몇 명이고 또 다른 무리는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관 장 이 해 정 :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 년차에 따라 인건비 계산이 되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규정이나 내용은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으므로 불만이 없음을 설명하다. 단지,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 재정사정에 따라 지급하되 이사회에서 예산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 19가 2년반 이상 지속됨에 따라 복지관 수입프로그램이나 실습생 또한 받지 못하므로 복지관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부산 시내 복지관 대부분은 수당지급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복지관 사정이 좋아지면 고생한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복지관이 원활히 돌아갈 때까지 수당지급은 중단제의를 하는 것이니 이사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직원 본인이 본 내용을 기안결재하였으므로 내용은 잘 알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 박 종 수 : 제가 복지관 전관장으로서 이해정 관장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명대로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장께서 마지막에 성과급지급을 제안해 주셨는데 복지관 사정이 좋아지면 수당이 없는 대신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며, 2022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다.

이 사 김 후 분 : 동의에 재청하다.

대표이사 최 소 남 : 참석이사 전원에게 동의 및 재청에 대해 가하면 『예』로 아니면 『아니오』로 답해 주길 알리다.

이사 전원 『예』로 답하다.

의결사항 1
2022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함

제 2 안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내부운영 개정의 건

대표이사 최 소 남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 개정건에 대해 이해정 관장 으로부터 설명을 구하다.

관 장 이 해 정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 개정규정안 및 신규문 대비 표를 참석이사 전원 열람케 하고, 2022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따른 신설 및 추가조항으로 인사, 복무관리등의 개정에 대해 설명하다.

대표이사 최 소 남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 개정건에 대해 질문 및 동의 를 구하다.

이 사 박 중 수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운영규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개정건에 대한 직원교육실시등 업무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 개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이 사 박 철 수 : 동의에 재청하다.

대표이사 최 소 남 : 동의 및 재청에 대해 가하면 『예』로 아니면 『아니오』로 답해 주길 청하다.

이사 전원 『예』로 답하다.

의결사항 2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함

제 3 안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민원사항 관련의 건

대표이사 최 소 남 : 부산 북구청 복지정책과-28106(2022.07.27.)호와 관련하여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과 그동안 경과를 설명하다. 위 건에 대해서는 본 법인 사업담당 천영희 감사에게 지난 8월2일 본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해 줄 것을 의뢰하였음을 설명하고, 천영희 감사에게 경 위 내용 보고를 요청하다.

감 사 천 영 희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2022년 8월 12 일 13시부터 15시30분까지 법인사무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음. 공문내용을 토대로

민원당사자와 충분한 면담 실시 후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참석이사에게 민원사항관련 통지서 및 경위서를 열람케 하다.

대표이사 최 소 남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민원사항 관련하여 질문 및 동의를 구하다.

이 사 이 정 목 : 민원사항에 대한 안타까움과 민원당사자의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며, 추후 동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다. 현재 제출된 경위서 내용에 관장께서 직원과 소통부재로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가르쳤던 교수로서 의견을 낸다면 이번 건은 이해정관장이 사임함으로써 종결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 노 동 문 : 저도 복지관 관장으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이와 같은 일로 사표까지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본인과 충분한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대표이사 최 소 남 : 예,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만, 의견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 박 철 수 :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오늘 이사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치사항에 대해 구청에 보고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사장님께 위임하고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내다.

이 사 박 종 수 : 이해정관장의 사임으로 종결짓는 것과 구청보고 및 나머지 내용들은 이사장님께 위임키로 하며, 민원사항 관련 건에 대해 동의하다.

이 사 김 후 분 : 동의에 재청하다.

대표이사 최 소 남 : 참석이사 전원에게 동의 및 재청에 대해 가하면 『예』로 아니면 『아니오』로 답해 주길 알리다.

이사 전원 『예』로 답하다.

의결사항 3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민원사항 관련건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함

대표이사 최 소 남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운영규정개정, 민원사항 관련건에 대해 참석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과 의결함에 감사드리며 폐회를 선언하다.

참석이사 전원 서명 날인을 한다.

2022. 8. 17.

사회복지법인 청록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수진 (인)

이 사 박종수 (인)

이 사 이정복 (인)

이 사 박찬우 (인)

이 사 노동은 (인)

이 사 김후분 (인)

이 사 (인)

이 사 (인)

감 사 최영희 (인)

감 사 권명희 (인)

감 사 정명환 (인)